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0> 만권거사

‘남아수독오거사(男兒須讀五車書)’라고 했다. 다섯수레 정도의 책을 읽어야 비로소 서로 대화할만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의 어원은 장자(莊子)가 친구 혜시(惠施)가 가진 책의 분량을 오거(五車)라고 한데서 비롯되었다. 두 사람의 수준 있는 대화는 제자백가서 여기저기에 언뜻 언뜻 보인다.

오거(五車)는 만권(萬卷)과 같은 말이다. 만권은 많은 책을 말한다. 그래서 책 좀 있다는 서재는 흔히 만권당(萬卷堂)으로 불리었다.

대구 비슬산 어귀에 있는 남평문씨 세가(世家)에도 ‘만권당’이 전해온다. 물론 현재의 ‘인수문고’ 전신이다. 원래 인홍사라는 절이 있던 곳으로 폐사지다. 절집기록에 의하면 고려말의 일연선사가 11년동안 머물면서 삼국유사 역대연표를 정리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책하고 인연이 많

의 의호단월로서의 의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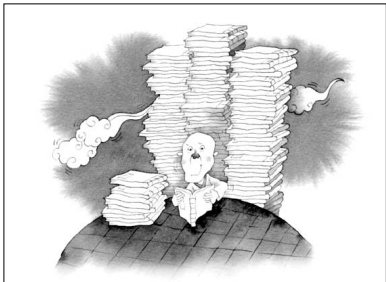
그는 마조도일의 제자인 귀종지상(歸宗智常)를 자주 찾아 읽고 법을 물었다.

하루는 경전을 열람하다가 ‘수미입개자(須彌入芥子)’라는 말에 막혀 귀종선사를 찾아갔다.

“경전에 ‘수미산을 겨자씨속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큰 수미산을 저렇게 작은 겨자씨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지만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舍十方)이라고 했다. 한 티끌이 사방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나라 때(서유기)의 손오공은 유사시에 자기 머리털을 뽑아 입으로 불어 수많은 원승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요즘은 한 개의 세포를 통하여 그 사람의 모든 유전정보를 읽어 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생



‘겨자씨속에 수미산을 넣는다’니 무슨뜻인지? “만권 책의 지식이 어디에 들었나” 문자 “아~”

은 터인 것 같다.

얼마 전 현대불교신문사내에 ‘종성문고’가 개원되었다. ‘사자갈 속에서 만권 책을 벗 삼았다’는 종성회상(2004년 열반, 백양사 서용선사의 제자의 개인도서 만오권전 기증에 따른 것이다.

당나라 때 강주(江州江西九江) 땅의 행정책임자인 자사(刺史)벼슬을 한 이발(李渤:773~831)은 별명이 ‘만권(萬卷)거사’였다. 만권은 현 시대에도 적은 양이 아닌데 그 당시로 말한다면 문자로 된 모든 자료를 섭렵한 대석학 즉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의미였다.

이런 그는 박학다식함과 함께 수행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당지장(마조의 수제자이면서 신라 최초로 선문을 연 도의국사의 스승)선사의 비문을 직접 짓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서당선사 입멸이후에 ‘대각(大覺)’이라는 시호를 내리도록 황제에게 아뢰는 인물이기도 하다. 신심으로 당시 선종

각하면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때는 책 만권을 섭렵한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난해한 구절이었던 모양이다.

그러자 질문을 받은 귀종선사가 물었다. “사람들은 그대가 책만권의 내용을 소화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쑤! 저도 한 문자 합니다. 크큭, 드디어 걸려들었군!”

“그럼 자사는 정수리부터 발꿈치까지 길이를 합해도 야채(椰子)만한데 그 만권 책의 지식이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만권이러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역설적 물음에 변쩍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선종은 구질구질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냥 한마디로 끝낸다. 선문답은 촌철살인(寸鐵殺人) 그 자체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분노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 분당 하안마음선원 천수다라니독송 현장

16살에 해인사로 출가한 용성. 의성 고운사에서 한국 근세 고승 수월 스님을 뵈고 묻는다.

“살과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천수다라니를 부지런히 외라. 업장이 소멸돼 마음의 광명이 드러나게 된다.”

늘 깨끗이 씻고 향을 피워 일상정성으로 천수다라니를 지송한 용성 스님. 무거운 과거의 업장을 거둬내고 깨달음의 ‘밀전’을 얻는다.

천천히 외다가 점차 빨리 외야 ‘내 마음이 본래 불보살의 마음’ 확인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장 녹여내

천수다라니의 힘은 무엇일까? 3월 15일, 지난해부터 매주 수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독송법회를 열고 있는 분당 하안마음선원(원장 덕봉)을 찾았다. 늦은 저녁, 법당에 들어서자 40여 명의 불자들이 한 목소리로 다라니를 외고 있었다. 404자 천수다라니가 밀물과 썰물처럼 운율을 타면서 목탁에 맞춰 경쾌하게 흘렀다.

1시간이 지났을까? 선원장 덕봉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다라니를 외는 가운데에서도 온갖 잡념이 일어나지요? 그간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게 잡지 말고 그대로 흘러 보내세요. 다라니는 번뇌 망상을 녹여내는 태양과 같아요. 그래서 천수다라니를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진 신묘한 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수다라니. 참회와 발원의 경전인 <천수경>의 핵심

이다. 대법천왕이 관세음보살에게 ‘다라니가 나타내는 마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묻자, ‘아홉 가지 마음(九心)이 다라니다’고 답한 것에서 천수다라니를 외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자비심, 평등심, 무위심(無爲心), 공경심(恭敬心),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 공관심(空觀心), 무견취심(無見取心) 등의 아홉 가지 마음이 곧 다라니의 본질과 생명임을 깨닫고자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는 이유인 것이다.

“천수다라니 독송은 ‘내 마음이 본래 불보살의 마음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선 수행의 기본이 된다는 말이지요. 사실 천수다라니는 중국 천태지의 대사를 비롯해 역대 선객들이 참선과 곁해 정진했습니다. 천장암 행자 때부터 하루 종일 외던 수월 스님도 늘 천수다라니를 외면서 번뇌 망상을 완전히 녹여 수행의 기초를 다졌다고 합니다.”

덕봉 스님은 천수다라니 독송이 참선의 밑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천수다라니는 하나의 회두예요. 번뇌 타파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말이지요. 다라니 독송은 염불선(念佛禪)과 닮았지요. ‘염불하는 이 높음 누구인가(念佛者是誰)’를 회두 삼아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워 결국, 무념의 경지에서 ‘내가 부처(自性彌陀)’임을 깨닫는 염불선 수행법이 다라니 독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천수다라니 독송을 하고 있는 재가자들의 체험은 어떻게? 2년째 천수다라니를 외고 있다는 이명자(57·용인시 죽전동)씨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나는 왜 괴로울까? 늘 주변 상황만을 탓했지요. 그러다 천수다라니를 매일 108독을 하니, 주위에서 닦쳐오는 장애들이 결국 내 업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그러나 분노와 억울함으로 흘렸던 눈물이 기쁨과 화해의 눈물로 변하더라고요.”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는 재가자의 모습에서 수행의 간절함이 묻어났다.

조희숙(46·성남시 서현동)씨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천수다라니를 21독 하면서 ‘자신이 변하니 주위 사람도 변하는’ 이치를 깨닫게 됐다. 다라니 독송이 자신만을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하안마음선원은 불자들이 다라니를 보다 빨리 집중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천천히’ 독송하다 점차 ‘빠르게’ 읽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다라니를 소리 높여 외 때는 그 외는 것을 들이켜 볼 것 △입 안의 소리로 외 때는 그 외는 소리를 들이켜 볼 것 △입과 혀를 움직이지 않고 다라니를 생각할 때도 그 생각하는 것을 들이켜 볼 것 등을 당부한다. (031)707-0108

글·사건/분당=김철우 기자

제1기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봉은사서 입제



참가자들이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에게 경례 받는 방법에 대해 지도를 받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무턱대고 찾아가 물어 자신도, 알아들을 안목도 없고... 스승을 만날 인연만 기다렸지요.”

3년 전, 공직생활을 접고 책으로만 간화선을 맛봤던 홍천희(60·서울 신촌동)씨. 조계종이 중단 사상 처음으로 연 ‘제1기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입제식에서 기

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3월 14일 오후 7시, 서울 봉은사 시민선량. 홍희와 같은 바람을 안고 재가자 54명이 파리를 틀고 앉았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의 “기대해도, 믿어도 좋다”는 말 한마디에 걸연한 낯빛은 유연해진다. 황수경 지도사가 프로그램의 특징과 목적, 일정 등을 공지한다.

“여러분! 진정 내 자신이 부처님입니다. ‘왜 선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죠.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겪는 경계들을 어떻게 간화선적으로 해결할지,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찾아보게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10주 후, 달라진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확인해보십시오.”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은 철저히 간화선 수행의 ‘체험’과 ‘수행안목 키우기’에 맞춰져 있다. 즉 ‘기본기 다지기’에 주안점을 뒀다. 때문에 10주차 교육은 강의, 질의응답, 수행담 나누기 등 3교시로 짜여있고, 회

향일은 전통사찰에 찾아가 수행체험을 갈무리한다.

특히 ‘수행담 나누기’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간화선 수행을 알기 전과 그 이후의 변화흐름을 공유하면서 자기 공부를 자연스럽게 점검할 수 있게 했다. 또 ‘매회 수행과제 도출하기’는 단순 교리강의의 한계를 벗고, 참가자 스스로가 ‘간화선 수행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직접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 진행된다. ‘수행일지’를 매일 쓰게 할 것도 이 때문이다. 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너는 누구인가? 너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밤은 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세는 본래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세계 최고의 빙의 치료 전문가
「미국」 심리학자 볼드윈 박사의 6단계 빙의 치료법 공개!

전생·빙의(치유)사 과정

(전생, 빙의 3시간 치유기법 전수)

개강
4월 12일

- 모집인원 : 전생·빙의반 : 30명 (수료자 전생, 빙의 치유사 자격증 수여)
- 교육시간 : 전생·빙의반 (수)10:00~18:00 (매주 8시간×8주) 총 60시간 교육
- 국제 공인 트레이너 설기문 박사 직접지도 (한국 NLP·최면아카데미 원장)

※ 자세한 교육내용 : 홈페이지 www.nh114.co.kr 참조 바람

국제공인 교육기관

한국 NLP·최면 아카데미

교육/상담 : 02)757-8008

설기문 무료공개강좌

- 미국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육학박사-상담심리학 전공)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역임
- 상담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 국제공인 NLP·최면치료·시간선치료 트레이너
- 전생·빙의 치료 전문가

● 주요저서(역서) : 최면과 전생 퇴행, 전생 가기 참 쉽다.

▶ 무료 공개 강좌 안내 ◀

- ♣ 일 시 : 2006년 3월 29일 (수) 오후 2시~5시
- ♣ 장 소 : 한국NLP·최면 아카데미 교육장 (서울시청역 조선호텔 정문 앞 소공빌딩 3층) 정원 - 30명(선착순 예약접수 마감)

※ 자세한 내용은 www.nh114.co.kr 참조 요망